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 아동의 내면적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송 하 나¹⁾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아동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 4-6세 아동 114명(남아 56명, 여아 58명)과 그 어머니들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실험실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두 가지의 방향의 경로 모형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양육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표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와 아동 간의 관계가 상호적이고 양방적임을 시사하며, 특히 우울이나 불안이 높은 아동에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행동이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주요어 : 양육 스트레스, 정서표현성, 내면적 문제 행동, 경로 분석

1)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jni4ever@skku.edu)

I. 서 론

아동의 부적응적 문제 행동은 사회정서 발달의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모나 교사는 물론 연구자들도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공격성 등의 외현적 문제 행동에는 더 주목한 반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박지연, 이숙, 2009). 그러나 최근 성인의 우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어린 유아들까지 우울로 진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내면적 문제 행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린 아동의 문제 행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한 부모를 가진 영아나,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들은 이후 유아기와 아동기까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haw, Owens, Vondra, Keenan, & Winslow, 1996; Shaw & Vondra, 1995).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Anthony, Anthony, Glanville, Naiman, Waanders, & Shaffer, 2005; Crnic & Greenberg, 1991)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통제적이고 처벌적인 양육 행동과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련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양육 스트레스는 개별적으로, 혹은 양육 행동과 상호 작용하면서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아동이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부정적인 각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Deater-Deckard, 1998;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때 아동은 자기 자신과 사건, 주변 환경 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이 증가할 수 있다.

박진아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높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보고하였을 때, 아동이 내면적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동시에, 아동을 까다롭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아동의 외현적 문제 행동이 높았다. Kwon (2007)의 연구 역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내재화되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경로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양육 스트레스의 간접적 영향은 매개 변인인 양육 행동을 통해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Deater-Deckard, & Scarr, 1996). 양육 스트레스 만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스트레스를 다루고 있는 스트레스 모델들도 (Conger, Conger, Elder, Lorenz, Simon, et al., 1992; McCubbin, & Patterson, 1983) 이러한 매개 효과를 가정하고 있다. 가족 내의 스트레스가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불러 일으켜 아동의 적응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민감한 반응들은 감소하는 반면, 처벌적인 행동은 증가

한다(전미순, 이영애, 2009; 조규영, 어용숙, 안민순, 2010; Walker & Cheng, 2007). 즉, 내면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표출되어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관련 행동, 아동의 문제 행동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첫째, 앞서 잠시 지적한대로 유아 같은 어린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어머니의 일반적 양육 행동의 영향 외에 어머니의 정서적 행동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이 많지 않다. 양육 스트레스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과 연결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아동에게 가장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몇몇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으며(김숙령, 고윤희, 2009), 특히, 부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isenberg, Thompson, Fabes, Shepard, Cumberland, et al., 2001). 또한, 권연희(2010)의 연구에서는 부적 정서표현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매개 효과는 뚜렷하게 검증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 행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어머니 관련 변인들의 매개 효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크게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양육 스트레

스가 항상 부정적 양육 행동이나 부정적 정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권연희, 2010; Anthony, et al., 2005; Belsky, 1984; Walker, & Cheng, 2007).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려 하였다.

이처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어린 아동들은 부모에 의해 사회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설정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자들은 부모-자녀 관계가 양방향적(bidirectional)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기질은 애착 형성이나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며(Eisenberg et al., 1998),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적 의사소통 또한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Fivush, 1989).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은 역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조규영, 어용숙, 안민순(2010)의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영신과 정영숙(2000)도 유아가 기질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상호 작용 한다. 어머니가 아동의 문제 행동을

크게 걱정하는 경우에는 더 큰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데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ong, Gurka, & Blackman, 2008), 아동의 문제 행동을 아동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어머니가 더 처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Bolton, Calman, Barrowclough, Peters, Roberts, et al.,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에 의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가 양방적임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을 가정하였다. 즉, 어머니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방향과 더불어 아동의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아동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잇는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그림 1 및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실제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영향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양방적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모형의 방향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에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아동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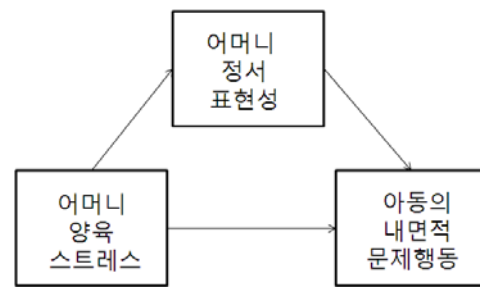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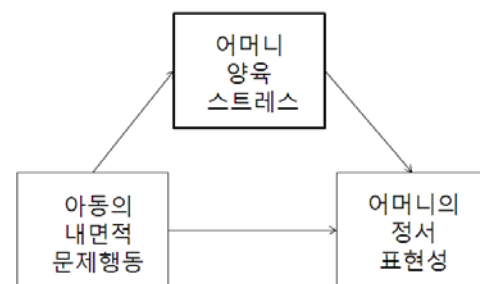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

연구문제 1-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1.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과 정서표현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6세 유아 114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이 연령대는 유아들이 부모와 언어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시기이며, 또한 우울 등의 내면적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남아 56명, 여아 58명으로 전체 아동의 평균 월령은 65.65개월(약 5세 6개월; $SD=9.12$)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월령은 428.35개월(약 35세 8개월; $SD=30.09$)이었으며 79%의 어머니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삼분의 일 정도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가계소득 월 300만원 이상인 가정이 67%였다. 본 연구 대상 가운데 저소득층은 없었으며 차상위 계층 2가정만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은 전체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Crnic과 Greenberg (1990)가 개발한 Parenting Daily Hassles(PHD) Scale로 측정하였다.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번안한 도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번역한

문항에 대해 다른 아동발달전문가가 문장이 매끄럽고 의미가 잘 전달되는지 안면 타당도를 살폈다. 또한 번역한 문장을 다른 국내 연구자들이 번역한 것과 비교하여 사용한 용어가 적절한지 점검하였다.

이 도구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양육 관련 스트레스 사건의 빈도(frequency)와 강도(intensity)를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빈도의 평정은 각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이며, 강도의 평정은 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주관적인 스트레스 경험을 제시하는 강도의 평정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원래 전체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외동이의 어머니에게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한 문항(자녀들 간의 다툼 중재)을 제외하고 1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8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Halberstadt와 동료들이 (Halberstadt et al., 1995)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설문지 Self-Expressiveness Family Questionnaire (SEF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래 40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는 각 문항에서 제시된 정서적 상황이 가정 내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9점 척도로 평정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빈도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로 된 이 도구를 연구자가 먼저 한글로 번역하고 다른 이중 언어 사

용자가 역 번역(back-translation)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함께 논의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어휘와 문장을 수정하였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이 도구에 대해 정적표현성과 부적표현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을 제시하거나, 부적 표현성을 다시 둘로 나눈 3요인 구조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주축분해법과 직교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적표현성과 부적표현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이 확인되었다. 중복 적재되거나 적재치가 낮은 4문항을 제외하고 난 뒤, 정적표현성에 속하는 21문항과 부적표현성에 속하는 15문항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정적표현성에 대해 .92, 부적 표현성에 대해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점수가 높을수록 표현성이 높은 것이며 정적 정서나 부적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은 Achenbach 등 (Achenbach, 1991; Achenbach, & Edelbrock, 1983)이 개발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을 오경자 등(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이 국내 아동과 청소년에 맞게 표준화한 K-CBC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에 대해 잘 아는 부모나 기타 양육자가 아동이 문제 행동을 얼마나 자주 나타내는지 3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비행이나 공격성 등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현적 문제 행동 척도와 쉽게 관찰될 수 없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내재화 문제 행동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1문항으로 구성된 내재화 문제 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내재화 문제 행동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불안과 우울 척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85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과정과 자료 처리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구에 참여할 아동과 어머니를 모집하여 아동 실험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전체 127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로부터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설문지 작성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와 임상군에 속하는 아동을 제외한 11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먼저, 기술치 분석을 수행하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후 전체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면적 문제 행동은 선행 연구들에서 성차가 있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성차를 찾아 통제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과 t-test에는 SPSS version12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분석은 그림 1과 2에서 설정된 경로 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나타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의 분석에는 AMOS 7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들 간의 상호 관련성과 성차

전체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변인들에 대한 성차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2.65, p=.009$). 즉, 어머니들은 남아들보다 여아들에게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2는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2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r=-.24, p<.05$),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r=.22, p<.05$) 및 아동의 내면적 문제행동($r=.30, p<.01$)과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에도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26, p<.01$).

표 2.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 (n=114)

	1	2	3
[어머니]			
1. 양육 스트레스	-		
2. 정적 정서표현성	-.24*	-	
3. 부적 정서표현성	.22*	.08	-
[아동]			
4. 내면적 문제행동	.30**	-.18	.26**

* $p<.05$, ** $p<.01$

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앞서 제시한대로 요인 분석을 통해 정서 표현성이 정적, 그리고 부적 표현성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성은 매개 변인으로 설정되었으나 정적 표현성과 부적 표현성의 역할은 매우 다르게 가정된다. 정적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부적

표 1.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아 (n=56)		여아 (n=58)		전체 (n=114)	
	M	SD	M	SD	M	SD
[어머니]						
1. 양육 스트레스	46.75	11.68	44.55	10.91	45.63	11.30
2. 정적표현성	123.12	25.69	135.31	23.48	129.32	25.24
3. 부적표현성	55.30	16.91	59.43	18.26	57.40	17.65
[아동]						
4. 내면적 문제행동	7.19	5.96	5.70	4.70	6.43	5.39

정서표현성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전달되는데 가고 역할을 하거나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속성들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표 2의 상관 분석에서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은 양육 스트레스와 일대일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나 준거 변인인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그림 1의 모형에서 가정한 매개 변인의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 정서표현성에 대한 매개 모형만을 검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은 변인이 3개인 포화모형이다. 즉, 자료가 완벽하게 부합되며 $\chi^2=0$, 적합도 수치들이 1이 된다.

경로 분석 결과가 그림 3(표준화 경로계수)과 표 3(비표준화 계수)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beta=.22$, $p<.05$)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6$, $p<.01$). 또한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므로($\beta=.20$, $p<.0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정 정서표현을 통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1.962$ ($p<.05$)로 어머니 부정 정서표현성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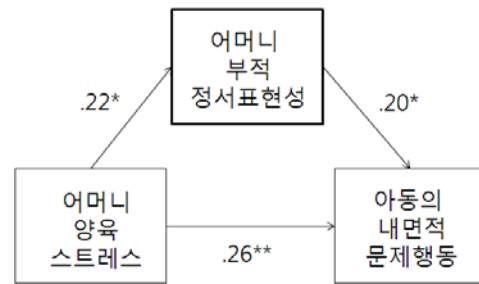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정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계수(표준화)

표 3. 변인들 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Estimate	S.E.	C.R.
스트레스→부정표현성	.34	.14	2.39*
스트레스→문제행동	.12	.04	2.88**
부정표현성→문제행동	.06	.03	2.27*

* $p<.05$, ** $p<.01$

3.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설정된 모형 역시 포화모형로 경로 분석 결과가 그림 4와 표 4에 제시 되어있다.

그림 4에서,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0$, $p<.001$),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정적 정서 표현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 $p<.05$). 여기서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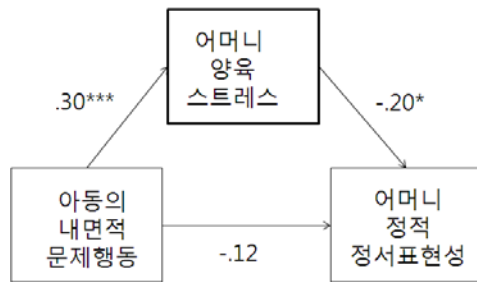


그림 4.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계수(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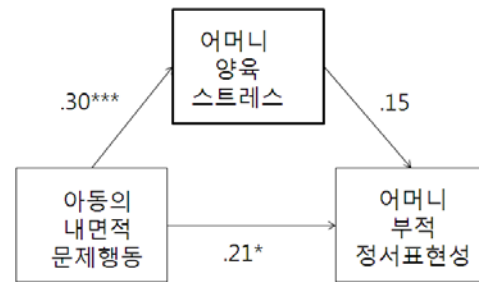


그림 5.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정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 계수(표준화)

표 4. 변인들 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Estimate	S.E.	C.R.
문제행동→스트레스	.64	.19	3.39***
문제행동→정적표현성	-.57	.45	-1.28
스트레스→정적표현성	-.45	.21	-2.12*

* $p < .05$, ** $p < .01$

표 5. 변인들 간의 비표준화 경로계수

	Estimate	S.E.	C.R.
문제행동→스트레스	.64	.19	3.39***
문제행동→부적표현성	.70	.31	2.27*
스트레스→부적표현성	.24	.15	1.64

* $p < .05$, ** $p < .01$

내면적 문제 행동은 양육 스트레스가 존재할 때만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test 결과 $z = 2.06$ ($p < .05$)로 유의하여 양육 스트레스가 완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에 대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5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5에서는,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beta = .30$, $p < .001$)와 부정 정서표현성($\beta = .21$, $p < .001$)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앞선 상관 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양육 스트레스가 부정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 간의 상호적 영향력에 대해 두 가지 방향의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어머니→아동으로의 경로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어머니로의 방향에서,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

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어머니→아동으로의 경로에 대한 결과이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정적 정서표현성에는 부적으로, 부정 정서표현성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웃거나 행복한 정서를 잘 나타내지 않고 빈번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린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에 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전미순과 이영애(2009)의 연구와 유사하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행동과의 관계를 보여준 선행 연구들(조규영 외, 2010; Walker, & Cheng, 2007)에 의해 지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였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들의 자녀일수록 내면적 문제 행동을 많이 보였다. 내면적 문제 행동은 위축된 성향과 불안, 우울 등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인식할 때 아동 역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Anthony et al., 2005).

박진아(2009)등의 논의에 따르면, 아동은 어머니가 자신을 힘든 아이로 느끼거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울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위축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내적 문

제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않아 아동과 부모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아동이 느끼는 불안이나 우울이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내면적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한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다른 구성원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어머니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가 세상을 보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동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박진아 등(2009)이 제한한대로 어머니들은 아동이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오래 가지고 있지 않도록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아동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풀어가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병원을 비롯한 아동 병원들이 제공하는 지침서에는 환아들의 부모에게 아동 앞에서 불안이나 슬픔으로 인한 감정들을 격하게 표현하지 말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나 심리적 상태를 보고 아동이 더욱 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을 처벌하거나 비난 하는 등

의 부적 행동을 많이 보이며, 이러한 부적 행동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문제 행동과 연결된다고 한 선행 연구들에 의해 지지된다. Eisenberg 등(2001)은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모델링을 통해 아동이 정서에 대해 배우고 학습하는 환경을 제공한다(Cervantes, & Callanan, 1998; Eisenberg, et al., 1998).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동에게 화를 자주 내었을 때 아동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화내는 것을 쉽게 학습한다. 따라서 정서를 통제해야 할 상황에서도 화를 내게 되는 부적응적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표현하는 부적 정서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Eisenberg et al, 1998, 2001)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설명은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심한 분노를 표현할 때 지나치게 긴장을 하거나 불안,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를 통해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커진다. 즉,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 같은 매개 변인은 양육 스트레스가 가진 원래의 직접 효과에 간접 효과를 더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은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는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아동→어머니에 대한 결과들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은 역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부적 정서표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의 문제 행동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들(조용신, 정영숙, 2000; Bolton, et al., 2003; Long et al., 2008)과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이 높은 우울이나 불안을 가지면서 위축된 경우 어머니들은 아동들이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나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더 힘들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또한 우울 등의 내면적 문제 행동은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비전형적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Herbert, 2005). 예를 들어, 우울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무기력감이나 비애감, 식욕과 흥미의 저하 등 전형적인 증상 외에 반항이나 분노 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언어적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는 어린 유아의 경우에는 불안과 공격성, 공포, 과장된 신체 증상 등을 더 자주 나타낸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의 혼재로 인해 내면적으로 우울하고 위축된 유아를 말을 듣지 않는 고집 센 것으로 오해하여 아동을 더 강압적이고 부정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적 정서를 적게 표현하였다. 즉, 아동의 문제 행동은 스트레스를 높여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기쁨이나 즐거움 등의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양육 스트레스가 부적 결과를 강화할 뿐 아니라 긍정적 결과까지 저해시

키는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부적 정서표현성을 통해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을 높이고, 이러한 문제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스트레스를 받아 긍정적 정서를 덜 표현하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표현성이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양육 스트레스와 부적 정서표현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부각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 및 완충 요인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호 요인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살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완충 요인들과 어머니의 특성, 아동이 특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면적 문제 행동만을 다루었으나 다양한 유형의 문제 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문제 행동에 따라 어머니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 관찰을 통해 보고식 측정의 타당성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대해 크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세 변인들 외에 더 다양한 변인들을 더하여 모형분석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연희 (2010). 아동의 기질,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정서표현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1(4), 257-280.
- 김숙령, 고윤희 (2009).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교사의 정서표현성, 유아의 정서조절력, 문제 행동간의 구조모형분석. *유아교육연구*, 29(6), 45-65.
- 김현희, 박천만, 이종렬, 신호순 (2009). 어머니가 지각하는 Parenting Daily Hassles가 양육 스트레스 및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3(2), 207-219.
- 박지연, 이숙 (2008). 우울, 불안과 위축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모래놀이 치료효과. *놀이치료연구*, 12(3), 85-103.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49-566.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중앙성연구소.
- 전미순, 이영애 (2009). 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모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97-116.
- 정윤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조규영, 어용숙, 안민순 (2010). 학령전기 아동

- 의 문제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거부적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6(2), 136-143.
- 조용신, 정영숙 (2000).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 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71-281.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VA: University of Vermont.
-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u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u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 133-154.
- Belsky J. (1984). The determine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lton, C. Calam, R., Barrowclough, C., Peters, S., Roberts, J., Wearden, A., & Morris, J. (2003). Expressed emotion, attributions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problem behaviou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 2, 242-254.
- Cervantes, C. A., & Callanan, M. A. (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 88-98.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e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3-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314-332.
- Deater-Deckard, K. & Scarr, S. (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59.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4, 241-273.
- Eisenberg, N., Thompson, E., Fabes, R.,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Guthrie, I. K., & Murphy, B. C. (2001). Mothers' 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 475-490.
- Fivush, R. (1989). Exploring sex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content of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Sex Roles*, 20,

- 675-691.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1, 93-103.
- Herbert, M. (2005). *Developmental problem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NY: Blackwell publication.
- Kwon, J. 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al intelligence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study of Korean preschool moth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7, 5, 449-460.
- Long, C. E., Gurka, M. J., & Blackman, J. A. (2008). Family stress and children's language and behavior problems: result from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health.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8, 3, 148-157.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Family stress and adaptation to crisis: a double ABCX Model of family behavior. In D. Olsen & B. Miller (Eds.), *Family studies review yearbook*(p. 87). Beverly Hills, CA: Sage.
- Shaw, D. S., Owens, E. B., Vondra, J. I., Keena, K., & Wonslow, E. B. (1996). early risk factors and pathway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disruptive behaviou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679-699.
- Shaw, D. S., & Vondra, J. I. (1995). infant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predictors of early behaviour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 335-357.
- Walker, L. O., & Cheng, C. (2007). Maternal empathy, self-confidence, and stress as antecedents of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2, 2, 93-104.
- 1 차원고접수 : 2010. 07. 07.
수정원고접수 : 2010. 08. 15.
최종게재결정 : 2010. 08. 2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daily stresses,
degre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ana Song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daily stresses, degre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One hundred and fourteen preschool children (56 boys and 58 girls) between the age of four to six year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and children visited a laboratory, and completed three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es. Our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negative expressiveness directly affected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particular, mothers' negative expressive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Conversely,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ad a significant impact upon the degrees of parenting stress and negative expressiveness experienced by mothers. These results carry with them certain implications: namely, that mothers' negative expressiveness and parenting stress can be risk factors in relation to the positive emotional interactions between mothers and their children.

Key words : parenting stress, daily hassles, emotional expressivenes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